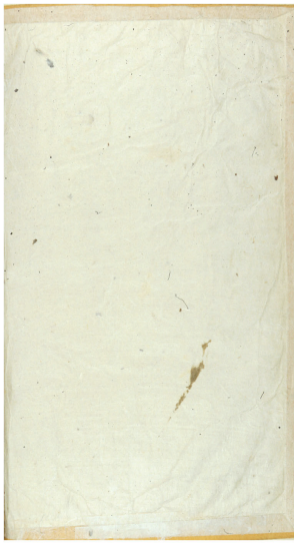


翻譯小學

卷之十

01
16
76



翻譯小經

16
76

第 308

大地
馬
其
後

工
刻
1



10



翻本譯曰 小治學卷之十

外傳篇

或問曰 問曰 第五倫曰 公公有私

乎 對曰 曰 昔昔 入心 有與 吾

千 里 馬 者 矣 吾 雖 不 受 介

每 河 三 公 有 有 介 選 舉 介 心

不 能 忘 而 亦 終 不 用 也

吾 兄 子 嘗 病 一 夜

十 往 退 而 安 寢 吾 子

有疾이雖어不省나視나而의不省
夕이不眠나若의是者나豈의可謂
無私乎호의리

或후이 第제五오倫론 庶려 무루디 公공 도 아
롬덧스미 잇는 가 디 답 호 디 아 래 나 를 도 호
미 로 즐 사 리 미 잇 거 늘 내 비 록 받 디 아 니 호 아
도 미 양 스 삼 공 이 사 롬 거 천 호 야 별 저 기 어
든 미 스 매 닛 디 몬 호 디 내 쫓 내 브 디 단 아 니 호
라 내 형 의 아 디 리 병 호 옛 거 늘 호 르 싸 미 열 번

곰가보듯물러와눈썹을편히자고내아드리
병호엇거늘바룩가보디야니하나새도룩자
디몬호니이러듯호이리엇디아물뵈미
업다니르리오

○劉_유寬_관이雖_유居_거倉_창卒_졸未_未의嘗_嘗

疾_疾열言_言언遽_거色_色의나디夫_夫부人_人의欲_欲목試_試시

寬_寬관令_令령憲_憲의아_아甸_甸의當_當당朝_朝도會_會회야裝_裝장嚴_嚴

업已_已의訖_訖질늘이使_使의侍_侍시婢_婢비로奉_奉봉肉_肉육羹_羹

羹_羹야_야飜_飜번汚_汚오朝_朝도衣_衣의고婢_婢비₁遽_거收_收유之

여.놀.湛.音.이.닐.오.디.禮.례.에.구.잇.문.의.디.나.갈.
제.브리.며.님.금.무.를.보.고.구.버.디.내.라.호.엿.고.
孔.공.子.호.ㅣ.모.솔.히.겨.셔.고.디.식.고.온.공.히.호.
다.시.니.父.부.母.모.사.르.시.던.나.라.하.는.례.도.를.
司.장.호.미.맛.당.하.니.엇.디.가.비.여.이.호.다.니.르.
나.노.

○揚.양.震.진.의.所.소.舉.거.荆.형.州.주.茂.무.才.재.王.
왕.密.밀.이.爲.위.昌.창.邑.읍.令.령.라.謁.알.見.견.申.申.懷.
히.金.금.十.십.斤.근.야.以.이.遺.유.震.진.대.震.진.이.曰.

담거늘寬관이 늦고출달이 아니하야 날회여
닐오디 糞穢애네소니 데어나하니 그性성과
도량이 이러듯하더라

○張당湛甘이 矜容嚴毅好泣禮례야 動靜止지

有^유 則^則 處^處 幽^幽 室^室 必^必 自^自 修^修

슈 整^整 정^정 며 雖^雖 슈 遇^遇 우 妻^妻 처 子^子 도 하야 若^若 약 嚴^嚴 엄 君^君

군 焉^焉 언 니 하디 及^及 급 在^在 지 鄉^鄉 향 黨^黨 당 야 詳^詳 상 言^言 언 正^正

정 色^色 식 대^대 三^三 삼 輔^輔 보 以^以 이 爲^爲 위 儀^儀 의 表^表 포 하니

張^張 장 낭 湛^湛 감 이 엄 정 하 고 레 도 를 츠 려 거 동 이 법

다와 기쁜지 비이실제도 반드시스기로 모를
맛가정제히 하며 비록쳐지라도 더접호를
존엄한얼운기티하더라 미술히이실제도 말
스미조셔하고 양조를 정다이하니 삼
삼 輔 報
맛사름돌히버블삼더라

建武 初 초 爲 위 左 馮 翊 의 니 러 告 고

歸 平 陵 릉 야 望 望 寺 시 門 문 而 시 步 보 德 主

進 薄 薄 一 進 進 日 日 明 明 府 府 部 部 位 位 尊 尊 德 德 功 功

重 重 不 不 宜 宜 自 自 輕 輕 言 言 曰 曰 淺 淺 淺 淺

례에 下河公公門문고 軾의 路로 馬마며 孔子

子 於어 鄉향 黨당 에 恂순 恂순 如어 也야나시

父부 母모 之지 國국 之지 所소 宜의 盡진 禮례 니 何

하 謂위 輕경 哉저 오

建建 武무 시저 左좌 馮풍 翊익 이란 벼슬하

여 잇더 니 말의 하야 본향 平평 陵릉 이랴 사

가셔 구윗문을 바라 보고 권거늘 主주 簿부

낫드라닐오 디 明명 府부 는 벼스리 높고 덕이

충하시니 모를가 비어 이본하 실거시이다 하

저니리寬판이 神신色색不블異이야乃내徐서言
인曰말羹羹爛란汝의手手호나其기性性
度도一如어此_하라_하다_하나_하이

劉류寬판이 상해비록 밧분 저기라도 말스물
설리아니 하며 과그런듯 못출아니 하더니 夫
부人신이 寬판을 하여 꿈로 커든 보리라 하야
朝도 會회호저글기 들워 판되 민무수를 다하
여 잇거늘 되선 선겨 집종으로 하여 고깃羹羹
을 드러 가다가 관뎛 옷 새 업터라 이고 문득

알故 人 人 人 人 知 知 君 君 不 不 知 知 故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何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知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密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揚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였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물로만 엮디오 뉘말이닐오다바미라알리업
스니라후여늘震전이닐오다하늘히알오귀
신이알오내알오그뒤알어니엇디알리업다
니루료후여늘密밀이붓그러가니라

○茅모容용이興어等동華비로避피雨우樹수

下하신衆중皆기夷이踞거相상對對늘어容용이

獨독危위坐좌야愈유恭공니郭곽林림宗宗

이行행見견간之지而而△奇기其기異이야遂수與

여共공言언고因인請청寓우宿숙다旦旦日일

애容용이 殺_살雞_계爲_爲饌_찬는어 林_림宗_종이

謂_謂爲_爲已_已의 設_設설니어 既_既의而_而의 供_공其_其기母

모고_고自_自不以_以의 單_單조蔬_蔬소로 與_與의客_객의同_同공飯_飯반

대_대林_림宗_종이 起_起의야_야拜_拜의之_之지曰_曰왈_왈卿_경은賢

현乎_乎호哉_哉지대 因_因인勸_勸권수_수령_령學_학야_야卒_卒을以_以의

成_成성德_덕라_라하니

茅_茅모容_容용이 동_동뉴_뉴엿_엿사_사름과 비_비를 피_피하야 나_나못

아래드_드렀더니 모_모든 사_사름 다_다쫓_쫓구_구려서 르_르마

조_조안_안자_자잇_잇거_거늘 容_容용이 는_는 혼_혼자_자수_수려_려안_안자_자더_더옥

조심하더니郭岾林宗종이디나가다가보
고노미게셔다른주늘그이히너겨더브러말
하여보고인하여제지비자리비러자더니이
튼날아츨미睿용이들길자바차반들문줄어
날林宗종이처를위하여문드나니라갓
더니이승고제어미를머기고저는치소로손
과흔의밥먹거늘林宗종이니라절하고닐
오디그의어딘다하고인하야글비호라권하
니내종애어된사르미되니라

○陶도儼然이爲위廣陽州주刺史史公이在지
州주無事公은輒曰朝臣運送百石麩於
어齋之外외고莫모運送於어齋之內內하디人
신問은其기故고대答답曰알음오一方방致의
力력中등原원나노過과爾이優우逸일면이悉공
不블堪감事公하노라其기勵려志지勤근力력
이審미此此類류也야라

陶도儼然이廣陽州주人고을刺史史公이란
벼슬하엿더니公公이셔일업슨저기어든은

득아차미벽일벽을손소드러집밖의음기
나조히도로드려집안해음기더니사르미그
리하산주를무리늘리답호되내보야호로中
동원원사홀히클드려도로앗고져하노니너
모편안히놀면이를이그억하디몬홀가저하
하노라하니그口숨닐와다힘배브즈런호미
다이곤더라

後淳 에 爲 荆 州 尹 刺 史 公 性 性
聰 敏 公 勤 於 吏 職 公 而 近

근禮례 라 愛의好호人인倫륜 니 終종日일 의 歛

림膝슬危위坐좌야間근外외多다事사千千緒緒

州萬萬端단 을 罔망有유遺유漏漏 며 遠원近近

書서疏스 를 莫막不불手手슈答답 디 筆필翰한如如

여流류야未未의嘗嘗 壅응滯滯 며 引인接접疏스

遠원야門문無무停停 容容 의 라 의 의

후에荊荊州州 유 스고을刺史史 를 의 歷歷 의

본성이총명하고민달야소심을브즈러니

하며은공호되레법에마자스인倫륜 의 이 를

앗겨 즐겨 하더라 저므로도 무르플럼수겨쉬
러안자셔군문에하나한천만가지아를遺
漏루티아니하며이러더러셔온글위를다손
소디답호티본근티호르논드시하야머물우
디아니하며먼디셔온사름을즉재디접하야
몬니머브런논소니업더라

常상語어人인曰왈大대禹우는聖성人인인사
乃내惜석寸寸陰음나히시至지於어衆중人인인
는當당惜석分分陰음이豈豈可可逸逸일遊遊유荒荒

황醉취야生소無무益익於어時시死사於어無무
聞문於어後후享향也야是시自자棄기也야諸
君군參참佐좌或혹以이談담戲희廢폐事사者
乃어命명取취其기酒주器기痛통者자
之지具구悉실投투之지于우江강吏리將
杖작則즉加가鞭편朴박曰고曰일榜방徒토者자
牧목猪제奴노戲희耳이老로莊장淳순夫부華화
非비先선王왕之지法법言언不불可가行
也야尼니君군子자當당正정其기衣의冠관

며^하攝^하섭^하其^하기威^하위儀^하의^하당^하何^하하^하有^하유亂^하란頭^하드^하眷

양望^하망^하야^하自^하不^하謂^하위弘^하홍達^하달耶^하야^하오^하리

상해사^하를드러닐오^하디大^하대禹^하우^하는聖^하성入^하신

이샤^하디^하히^하치^하만^하디나갈^하저글^하앗^하겨^하노^하디아^하니

하시^하니^하상^하했^하사^하르^하문^하히^하썸^하만^하디^하날^하스^하이^하도^하앗

길^하거^하시^하니^하엇^하디^하편^하안^하히^하놀^하며^하간^하대^하로^하술^하취^하하^하야

사^하라이^하셔^하도^하시^하절^하의^하더^하은^하일^하업^하스^하며^하주^하근^하후^하에

도^하일^하크^하리^하업^하게^하하^하리^하오^하이^하는^하제^하모^하물^하제^하비^하리

논^하디^하라^하하^하고^하모^하든^하아^하랫^하관^하원^하이^하부^하스^하하^하야^하놀^하오

일아니하거든제의술먹던그릇과저희두던
상복장의들출아사드레드리며아전과군
수들히그리하더니란티고닐오되상복장의
란거스돈치논노르셋이리라老로聘聘
과莊장周주의부향도인 이른넷어진님금의
범다온말이아니라하디아니홀거시니君君
주조는衣의冠관을정히하며威위儀의를太
려홀거시니엇디머리를현틀오고어디다하
오를길위셔어위크고풍달호라하리오

○王_왕勅_勅不_不와 楊_양炯_炯형과 盧_로照_조조 鄰_린린과 駱_로
 賓_빈반 王_왕왕 이 皆_皆기 有_有유 文_문문 名_명명 라 謂_謂위 之_지
 四_四人_人傑_傑걸 더 이 라 言_言言 裴_배行_행행 儉_검검 이 曰_曰알 士_士스 之_지
 致_致치 遠_遠원 는 先_先선 器_기기 識_식식 而_而이 後_後후 文_문문 藝_예
 에 니 勅_勅불 等_等등 은 雖_雖슈 有_有유 文_문문 才_재재 나 而_而이 淳_순
 부 躁_조조 淺_淺천 露_로로 니 豈_豈의 享_향향 爵_작작 祿_록록 之_지 器_기
 그 耶_야야 오 리 楊_양양 子_자자 는 沉_침침 靜_정정 니 應_應응 得_득
 令_令령 長_장장 니 餘_여여 得_득득 今_今경 終_종종 이 爲_爲위 幸_幸행
 하 니 其_其기 後_後후 에 勅_勅불 은 溺_溺남 南_남남 海_해해 고 照_照조

鄰린 는 投 투 穎 영 水 수 고 賓 빈 王 왕 은 被 피 誅 쉰

고 炯炯 은 終 종 盈 영 川 천 令 령 니 하 滔滔 기 如 여 行 형

餘 汲 之 之 言 언 하 々 々

조 왕 勃 勃 와 揚 양 炯炯 과 盧 로 照 조 鄰 린 과 駱

력 賓 빈 王 왕 과 네 사 르 미 다 글 흥 느 다 흥 느 소 리

나 네 호 쉰 이 라 니 르 더 니 裴 비 行 형 儉 검 이 닐

오 티 기 르 크 게 도 율 사 르 문 도 국 과 슬 거 오 미

문 제 오 글 직 조 는 후 엷 이 리 니 이 사 롬 돌 히 비

룩 글 흥 느 지 조 이 셔 도 기 량 이 생 르 고 연 타 오

니엇디버스를누릴그르시리오이등에楊양
炯炯이논심틈하고안정하니소령長庚씨스
큰하려니와그나문사르문이다주구마쉽디
몬하니라하더니후에勅拔은南宮海城에싸
디여죽고照添鄰린은潁陽水슈에뛰여드러
죽고賓빈王왕은조니버죽고炯炯은盈영
천스고을소령이란벼슬하여주그니다行
儉검의닐은말근더라

○孔孺義감이於어爲위義의에若약嗜기欲욕

야 불블顧江前전後후고於어刹刹與여祿祿
則즉畏외被피退퇴勤勤如어懦나夫부然然

과하디

避

孔공戡감이을훈일하기에는즐기듯하며탐
훈듯하야얍뒤도라보디아니하야하고刹刹
와祿祿과애는저허피하야물러가물섬재온
사근미양근더라

○柳류公공緯緯이居거처외藩번선其기子子
每每入입境境每每어郡군邑邑未未의嘗嘗知

다 하 더 하 既 하 이 하 至 하 지 하 야 하 每 하 의 하 出 하 入 하 口 하 에 하 常 하 存 하 於 하 이

戰 하 門 하 外 하 下 하 하 하 馬 하 아 하 呼 하 호 하 幕 하 賓 하 賓 하 단 하

爲 하 위 하 丈 하 溆 하 야 하 飯 하 飮 하 許 하 허 하 納 하 拜 하 謝 하 고 하 未 하 의 하 嘗 하 笑 하

泣 하 語 하 어 하 歎 하 觀 하 洽 하 喜 하 泣 하 더

柳 하 涇 하 公 하 綽 하 蹻 하 이 하 절 하 도 하 스 하 女 하 이 하 실 하 體 하 也 하 下

리 하 其 하 양 하 그 하 地 하 形 하 에 하 드 하 러 하 도 하 각 하 고 하 올 하 히 하 아 하 디 하 몬 하 ㅎ

더 하 니 하 게 하 니 하 르 하 러 하 도 하 미 하 양 하 나 하 들 하 저 하 기 하 살 하 문 하 밖 하 외 하 셔

몰 하 브 하 리 하 며 하 깃 하 관 하 원 하 들 하 올 하 들 하 로 하 뒤 하 얼 하 우 하 신 하 니 하 라 하 ㅎ

야 하 다 하 저 하 를 하 받 하 게 하 ㅎ 고 하 게 하 가 하 우 하 술 하 우 하 서 하 말 하 스 하 물 하 친

친히 하디몬게 하더라

○柳류仲동郢경이 이禮례律를身신야居거

家가애無무事사라亦역端단坐좌拱공手手수

出출內내齊지未미嘗상不블束束帶帶다

三삼爲위大대鎮鎮진廐기無무良良馬馬마

衣의不블熏熏香香公公退퇴必필讀讀독書書

서야手手不블釋釋석卷卷권

柳류仲동郢경이레도엇일로모물가져하녀

지브이서일업슨제도정다이안자블딩곳고

포租조 를 必_필 貫_貫 洲_洲 免_免 年_年 館_館 傳_傳 年_年 을 必_필 增_增

중飾의 여 宴_宴 賓_賓 犒_犒 軍_軍 을 必_필 華_華 盛_盛

而의 交_交 代_代 之_之 際_際 食_食 儲_儲 帑_帑 藏_藏

이 必_필 盈_盈 溢_溢 於_於 始_始 至_至 境_境 內_內 者_者

有_有 孤_孤 貧_貧 衣_衣 之_之 纓_纓 家_家 女_女 及_及 筭_筭 者_者

자_자 든_든 어 皆_皆 爲_爲 選_選 婚_婚 出_出 奩_奩 金_金 야

爲_爲 資_資 裝_裝 嫁_嫁 之_之 資_資 라

가 무_무 네_네 디_디 디_디 로_로 하_하 는_는 법_법 에_에 비_비 슬_슬 하_하 여_여 서_서 祥_祥 瑞_瑞

셔_셔 로_로 온_온 거_거 슬_슬 님_님 금_금 의_의 연_연 접_접 디_디 말_말 며_며 중_중 과_과 도_도 류_류 와_와

를 도 텨 함 허 여 주 디 말 며 장 니 죄 줄 법 을 누 기 디
말 며 물 위 의 방 소 을 흘 다 스 료 되 가 난 허 니 를
제 도 허 며 어 버 시 업 스 사 름 에 옛 비 너 규 를 시
금 히 허 며 허 운 이 무 리 만 켜 나 기 물 어 나 허 거
든 미 리 보 성 의 게 머 글 거 슬 뻘 이 며 군 스 의 머
글 꼭 식 을 창 고 애 녀 허 두 되 조 코 만 케 허 며 몬
감 파 잇 는 환 자 를 받 디 말 며 손 드 는 집 과 역 을
다 도 히 수 며 두 며 손 이 바 드 며 군 스 머 규 를 다
도 히 호 되 버 슬 기 라 고 되 던 장 홀 저 그 고 애 잇

논거시기독고나모미처심을적두곤더오게
하며그고을디경안해어버시업고가난한양
반의솔이나타니잇거든다사회를골히오죽
튼그물주어결속하야셔방하게하더라

○柳류玘 본이 曰 王相상國國涯에이지방

居거相상位위야掌掌利리權권이니려實두氏시

女녀 歸귀 請청 曰 王王工공라貨화一일

釵차 奇기 巧교라 湏슈七칠十십萬萬錢錢전

이 다러 王왕 曰 王王七칠十십萬萬錢錢전 我아一일

月 月 俸 奉 金 金 耳 耳 此 此 於 於 女 女 惜 惜 妖 妖 妖 妖

但 但 汗 汗 一 一 日 日 釵 釵 七 七 絳 絳 十 十 萬 萬 萬 萬 此 此 妖 妖 妖 妖

物 物 也 也 必 必 必 必 與 與 與 與 禍 禍 禍 禍 相 相 隨 隨 隨 隨 女 女 女 女

子 子 不 不 復 復 復 復 敢 敢 言 言 言 言 然 然 然 然

柳 柳 류 류 玳 玳 玳 玳 이 日 日 오 日 日 王 王 王 王 涯 涯 에 相 相 隨 隨 國 國 國 國

이 必 必 야 야 호 호 로 로 지 지 상 상 도 도 이 이 야 야 나 나 라 라 히 히 천 천 량 량 온 온 기 기 수 수

만 權 權 권 권 을 을 자 자 밧 밧 더 더 니 니 寶 寶 寶 寶 두 두 가 가 의 의 며 며 느 느 리 리 되 되 었 었 는 는

스 里 里 必 必 라 라 와 와 서 서 청 청 흥 흥 야 야 날 날 오 오 디 디 옥 옥 바 바 치 치 호 호 민 민 현 현

를 其 其 其 其 니 니 기 기 장 장 공 공 고 고 하 하 야 야 모 모 로 로 매 매 돈 돈 놀 놀 칠 칠 십 십 만 만

을바도려하사이다 조왕涯애닐우디돈칠십
만은내하들누튼그미니엇디네게앗기리오
마는하빈혀에돈칠십만이스니이논요괴로인
거시라이런거슨모로매화란이쫓차잇사니
라하여놀그싸리다시니르디몬하니라

數수冷냉月월에女녀녀 | 自自婚혼姻인會회歸귀

야告고王왕曰일前前時時釵차 | 爲爲위馮풍公공外

出出郎랑妻妻처의首수飾飾矣矣의니라하乃乃馮풍公공球

구也也야라王왕왕이嘆탄曰일馮풍公공公공이爲爲위郎랑吏

라^하妻^하처^하之^하지^하首^하飾^하의^하有^하汧^하七^하월^하十^하심^하萬^하計^하

錢^하선^하其^하기^하可^하汧^하久^하汧^하乎^하호^하아^하馮^하公^하의^하爲^하위^하賈^하汧

相^하양^하餽^하의^하門^하은^하人^하인^하라^하이^하最^하최^하密^하밀^하니^하더^하賈^하汧^하有^하

汧^하蒼^하蒼^하顛^하두^하一^하頗^하正^하張^하張^하威^하위^하福^하복^하이^하어^하馮^하公^하의^하

召^하소^하而^하의^하勗^하의^하之^하지^하니^하더^하未^하未^하泱^하泱^하旬^하旬^하의^하馮^하

公^하의^하晨^하신^하謁^하謁^하賈^하汧^하를^하니^하有^하汧^하二^하의^하靑^하靑^하衣^하의^하捧^하

甕^하地^하의^하黃^하황^하酒^하주^하야^하出^하출^하飲^하음^하之^하지^하대^하食^하식^하頃^하頃^하

而^하의^하終^하종^하를^하커^하賈^하汧^하一^하爲^하위^하出^하출^하涕^하涕^하竟^하竟^하不^하不^하

知^하其^하기^하由^하유^하라^하니^하

두어돌마니서리婚혼姻인훈몬그지에너러
와셔포왕涯에더브러닐오타아래니르던그
빈혜처외郎랑색슬하어인는馮풍球구의
겨집비사머리에고쟝잇다이다하여닐포왕
涯에탄하야닐오타馮풍球구니스가온벼슬
하야셔겨지비머리에수민거신통칠십만이
스거니엇디오라리오하더니馮풍球구니賈
과鍊속이랏지상의지비드나드논손이되여
그장친하하더니賈과鍊속의종이글외여사

르물주기며사르며향는유셔를즈무쓰거늘
馮풍球구 | 블러경계하더니열호리몬하의
셔馮풍球구 | 새배賈가鍊속이를되라갓거
놀두아히종이地의黃황오로비즌수리라하
고내여다가머기니밤머글다든하의셔죽거
놀賈가鍊속이슬허는므를내오디내종내주
근연유를모르니라

又浮明 명年年에 王왕賈가 | 皆이 遼汗 稿稿하
다 意의 라 王왕이 以이 珍珍 玩玩 寄寄 貨貨 爲爲

위 물물之지妖요 히 나라信인知디 言인矣의 나徒
도知디 물물之지妖요 而의 不블知디 恩은權권
隆용赫赫之지妖요 | 甚治於어 물물耶야 耶馮
풍이 以어 卑비位위로 貪甘寶보貨貨야 已의 不
블能능 正正其기家가 여 盡진惡惡용 所所_二事_一而
이 不블能능 保보其기身신 나斯스亦역 不블足
족言인矣의 와어 나 賈_二計_一之지 臧_二獲_一實이 害_二海_一門
문客_二의_一于우 墻_二將_一廡_二阜_一之지 間_二간_一 而의 不블知
디 欲욕 卒_二終_一 終_二終_一 始_二以_一 富_二阜_一 貴_二귀_一 其기 可_二可_一 得_二得_一

또이듬히에 조왕 涯에 와 賈가 鍊속이다 化란
만나 주그니라 슬프다 조왕 涯에 는 보비엿그
특한 거슬요 괴로인 거시라 하니 진실로 마리
아 아라 하도 다 커니 와 한갓 보비엿거시요 괴
로운 주를 알오 님금 쇠 괴이 여유 세 탄고 빛나
미 보비 두곤 더요 괴로 오물 아 디 몬 하 후 다 馮
공 球 구는 노가 온 버슬 하야 셔 보비엿거슬 탐
하야 제그 지 불 청히 론 하고 제 섬 기는 사 르 미

게모슴신장한다가제몸도보전티몬하니이
는소속히니르디몬하리어니와貫가餽속은
제종이지비드나드논손을집담스이에셔주
구디아디몬하거니내종내부귀를하고저
흔
돌가히득하라

此方 一 雖 介 一 一 事 一 一 作 作 戒 戒 數 數 一 一 端 端 一 一 也 也
다

다 이 비록 하히리라도경계되오민여러가지로

○王^왕양^양 文^문正^정경^경公^공공 이 發^발解^해히 와 南^남남^남省^성성

과 廷^廷명^명試^시시 에 皆^皆기 爲^爲위 首^首수 冠^관관 니^이러 或^或혹 이

戲^戲희^희之^之지 曰^曰말 狀^狀장 元^元원 로 試^시시 三^三삼 場^場당 니^하니 一

日^日일 生^生싱 喫^喫익 箸^箸탁 이 不^不블 盡^盡진 다^하로 公^공공 이 正^正정

色^色색 曰^曰말 曾^曾중 은 平^平평 生^生싱 之^之지 志^志지 一^一 不^不블 在^在

溫^溫온 飽^飽포 라^하니

文^文문 正^正정 公^공공 王^왕왕 曾^曾중 이 今^今금 德^德덕 弘^弘홍 制^制제 香^香향 시와

회 시와 편 시를 다 章^章원 하얏더니 或^或혹 이 부스

하야 日^日일 오티 三^三삼 場^場당 에 다 章^章원 하니 一^一 일 생

싱애머그며니블이른니르하디몬하리로다
하야놀포왕會중이포정色식하고닐오디내
의푸평생싱브든더이납고비블오매잇디아
니하니라

○范滂文문正정公공의 少소有유大대節節결야

其기於어富부貴귀貧빈賤천과 毀회譽예에 歡환

戚척애 不불一일動동其기心심고 而이慨개然然

有유志지於어天천下하나 嘗상自自誦誦

曰왈士사當당先先天천下하之지憂우而이

憂^우 후^후 後^후 卒^수 天^천 下^하 之^지 樂^락 而^而 樂^락 也^也 矣^야

하나라

范^범 公^공 范^범 仲^중 淹^淹 邑^읍 以^이 終^종 而^而 已^이 矣^야

公^공 范^범 仲^중 淹^淹 邑^읍 以^이 終^종 而^而 已^이 矣^야

公^공 范^범 仲^중 淹^淹 邑^읍 以^이 終^종 而^而 已^이 矣^야

公^공 范^범 仲^중 淹^淹 邑^읍 以^이 終^종 而^而 已^이 矣^야

公^공 范^범 仲^중 淹^淹 邑^읍 以^이 終^종 而^而 已^이 矣^야

公^공 范^범 仲^중 淹^淹 邑^읍 以^이 終^종 而^而 已^이 矣^야

公^공 范^범 仲^중 淹^淹 邑^읍 以^이 終^종 而^而 已^이 矣^야

후에 즐김 거사라 하더라

其하事하於上하望하遇하人하心하에 一하日하以하自하不하信하心

야하不하擇하利하而하害하也하爲하위하趨하去하捨하也하其하기

有하濟하所하爲하위하드하어 必하竭하盡하心하其하기 方하방 必하竭하日하을 爲하

위하之하自하不하我하者하야 是하當하當하如하是하也하와 尼하其하

기 成하成하與하어 否하부 一하有하濟하不하在하也하我하者하야 是

雖하聖하賢하賢하현 도 亦하不하能하能하必하竭하日하이 亦하不하能하必하竭하日하을

苟하不하也하지 오 리

우회사 롬 셴 기 며 사 롬 디 접 하 기 롬 하 인 디 티

민비하야 내게리하일와 해로온 이를말하야
하며 말며 하디 아니하고 하올이리잇거든 모
로매 그모해이를 다하고닐오디 날로브디하
올이른이러시하리어니와그일며몬일우
미내계잇디아니하이른비록성현이샤도그
필티몬하시느니내엇디구차히하리오하디
라

○司公馬河溫은公공이 嚮상言언 忝오 無무 過
과 人인 者者자니와 但但 平平生生 所所 爲爲 未未

이嘗상有_유不_不블可_可가對_對되人_人신言_言언者_者詐_詐耳_耳의
라로

司_司馬_馬아溫_溫은公_公공이상_上네닐오_오되내_내니_니미_미게
셔_셔더_더은이_이리_리업_업거_거니_니와_와오_오직_직平_平평_平生_生생_생애_애호_호은
이_이리_리남_남더_더브_브러_러몬_몬닐_닐올_올이_이리_리업_업소_소라_라호_호더_더라

○管_管관_관寧_寧녕_녕의嘗_嘗상_상坐_坐좌_좌一_一일_일木_木목_목榻_榻탁_탁야_야積_積적_적

五_五오_오十_十십_십餘_餘여_여年_年년_년터_터어_어로_로未_未미_미의嘗_嘗상_상箕_箕기_기股_股고_고터_터
其_其기_기榻_榻탁_탁上_上상_상當_當당_당膝_膝슬_슬處_處처_처一_一皆_皆기_기穿_穿천_천니_니

라

管 卽 寧 寧 이 상 해 호 나 모 평 상 의 안 자 서 쉬 나
문 히 로 디 무 림 세 여 안 씨 아 니 호 니 평 상 우 희
무 림 다 하 던 사 히 다 들 워 디 었 더 라

○ 呂 頤 正 公 公 自 少 少 講 學 學 學

即 以 以 治 心 心 養 性 性 爲 爲 本 本 本 本

寡 寡 嗜 嗜 慾 慾 薄 薄 滋 滋 不 不 味 味 無 無 疾 疾 疾 疾

言 言 人 人 遽 遽 色 色 無 無 窘 窘 足 足 步 步 無 無 惰 惰 容 容

용 용 凡 凡 喜 喜 笑 笑 淫 淫 俚 俚 近 近 之 之 語 語 未 未 未 未

嘗 嘗 嘗 嘗 出 出 諸 諸 口 口 於 於 於 於 世 世 利 利 紛 紛 紛 紛 紛 紛

聲伎에遊유宴연로以이至지於어博博奕奕

奇의玩玩에淡담然然無무所소好호라_{호디}

正경獻_현公공呂려公公著著_다 | 저든제브터

글비호되_다숨다스리며본성길우를웃듬의

로하_다니아름땃즐겨_고저하_는이리저그

며음식을도_하아니아_며생_은말와과_고문_는

곳출아니_하며_보앗_본거르미_업스며_게으른

양_지업스며_물위_희롱_앗우_음과야_속호_말스

를_입뱃_그내_디아_니하_며세_가니_리호_일와어

즈러이 빛난일와 풍류며 이바디며 바독장의
도헌구경도인거세다 님도히너겨즐길거시
업더라

○明明道도先生生성이終종日일端단坐좌시

니如어泥니塑소人인신_덕샤及급至지接접人인신

則즉渾혼是시一일團단和화氣기_라

明明道도先生生성이상네져므도록정다이

안자겨실제논홀고로문돈사름기투샤다사

름디접하실제논자내모미전_황일_의유화

○그고운이러라

○明明道도先선생심이作작字字時시甚심

徽徽시^하다^하는^하명^하명^하謂謂人인신曰말非비欲욕字字必好

道도^하라^하即即此此^하是是^하學學^하라^하이^하니

明明明道도先선생심이글스실저그^하장조심

하^하다^하시^하니^하사^하름^하드^하려^하니^하르^하샤^하디^하글^하즈^하물^하도^하게^하하

고^하쳐^하하^하는^하주^하리^하아^하니^하라^하이^하리^하호^하미^하모^하숨^하자^하보^하들

비^하호^하미^하니^하라

○劉劉忠忠肅肅定定潁潁公公공이見見溫溫은은公公公公^하問問^하문

盡心行禮已之지要요 一可가以이終終
身之行禮之지者자대公公이 曰曰其기誠성乎
호대劉劉公公。問問行禮之지何何先先 公
公이 曰曰有有不不不不妄妄語語어 始始이니

忠忠定定公公劉劉安安世世司司馬馬溫溫
公公을보아무로디무스믈다하며몸가져하
노매조스로온이리므스이리죽도록하염즈
하니오溫은公公이니르샤디그정성인디
류公公이 무로디형호매므스거슬몬져하르

溫은 공공이니라 사디거스말아니호모로브
터비르서호르기시라

劉異 공공이 初 초 甚 심 易 이 의 지 니 더 及 급 退 퇴

而 이 自 己 讓 은 括 括 日 일 의 지 所 所 行 行 과 與 이

凡 凡 所 所 言 言 인 다 自 自 己 己 相 相 擊 擊 肘 肘 牙 牙 且 且 肩 肩 也

者 者 多 多 矣 矣 의 니 러 力 力 行 行 七 七 歲 歲 而 而 已 已 後

卒 卒 이 成 成 矣 矣 自 自 己 己 此 此 太 太 로 言 言 인 行 行 也 一 一 日 日 致 致 也

며 表 表 也 裏 也 의 相 相 應 應 也 過 過 事 事 以 坦 坦 然 然 인 也

常 常 有 有 汗 汗 餘 餘 이 裕 裕 乎 乎 라

劉류公공이 처사의 더말수 들듣고 기장수이
너겨 하더니 물러와 날마다 하난일와 들윗니
르스말와를 견준뵈고 티힐취보니 본들여서
르어근이리하더니 본급히를 힘서 호후에사
일위말와일와호가 지오안팍기서르마자맛
난일마다 현즐히유여하더라

○劉류公공 이 見인賓빈客객의 야談談且論론踰유

時시 體體 無무 缺缺 側측 去去 肩肩 背背 疎疎 滄滄 直直

덕며 身身 不不 少少 塗塗 動動 浮浮 至至 手手 足足 疾疾 也也

수익 수익 不 不 移 移 이 이 然 然 也 也

劉君公功이 소는을 뒤 접하여 서 말스름이 숙히
호되 모를 기우리디 아니하며 잇게와 동이고
즉함며 모를 쇼고 매도 움즈기 디아니하며 손
발도 움기 디아니하더라

○徐 서 積 積 仲 仲 車 車 一 一 初 初 從 從 安 安 定 定 思 思 胡

호 先 先 生 生 學 學 潛 潛 心 心 力 力 行 行 不 不

복 復 仕 仕 進 進 其 其 學 學 以 以 至 至 誠 誠

로 爲 爲 本 本 事 事 母 母 至 至 孝 孝 自 自 言 言

즈·가·디·여·힘·서·흥·하·야·벼·슬·아·니·하·고·글·비·호
돌·지·성·으·로·옷·드·를·사·마·어·미·섬·규·를·지·극·이
호·도·하·더·니·자·내·닐·오·디·처·삼·胡·호·先·선·生·성
회·습·고·물·러·날·제·머·리·테·를·저·기·기·우·시·호·니
先·선·生·성·이·문·득·소·리·를·무·이·하·야·니·르·샤·디
머·릿·테·는·곧·게·가·질·거·시·라·하·야·시·놀·내·글·로
인·하·야·셔·싱·곡·호·니·하·갓·머·릿·테·를·곧·게·호·쉴
니·아·니·라·므·숨·도·곧·게·호·거·시·로·다·하·야·일·로
브·터·샤·곡·호·므·슴·을·막·디·아·니·호·라·하·더·니·죽

아니하고닐오티君군우조난누른것과흰것
과아니어든닙디아니홀디니부신곳프른거
슬닙느니라

○柳滄玼변이 曰 崑崙高고 待시郎郎 兄兄 弟弟 三

삼人人 신이俱구居거 淸청 列렬 非비 速속 客객

은이이 不불 二의 糞糞 截截 夕夕 食食 餽餽

복 匏포 兩의 已이 矣리

柳滄玼 변이닐오티高고 待시郎郎 兄兄 弟弟 세히

다조흔벼슬하야이쇼티손을청티아니호저

기어든 광과 고기와 두가지 짓거슬기 초아니하
고나 죄싸비는 무수와 박만하야 먹더라

○李의 文 文 靖 公 公 이 洽 티 居 거 弟 弟 於 於 이 封

봉 쇼 구 문 처 의 디 호 廳 廳 事 事 이 前 前 전 전 이 僅 僅 近 近 容 容 용 용

旋 旋 馬 馬 과 과 니 니 러 러 或 或 或 或 言 言 언 언 其 其 其 其 太 太 太 太 德 德 德 德 際 際 際 際 의 의 호 호 대 대 공 공 공 공

이 笑 笑 曰 曰 왈 왈 居 居 거 弟 弟 弟 弟 는 는 當 當 當 當 傳 傳 傳 傳 子 子 子 子 孫 孫 손 손 손 손 니 니 이 이

此 此 太 太 爲 爲 爲 爲 宰 宰 宰 宰 의 의 輔 輔 輔 輔 보 보 보 보 廳 廳 廳 廳 事 事 事 事 이 이 誠 誠 誠 誠 성 성 성 성 隘 隘 隘 隘 의 의 거 거 이 이

의 니 爲 爲 爲 爲 大 大 大 大 祝 祝 祝 祝 濟 濟 濟 濟 奉 奉 奉 奉 禮 禮 禮 禮 禮 禮 禮 禮 則 則 則 則 已 已 이 이 의 의

寬 寬 寬 寬 矣 矣 의 의 라 라 니 니

文 文 靖公 공 李 리 沆 항 이 살 지 블 封 봉 소 구
門 문 밖 시 지 수 디 대 형 알 피 게 우 물 도 라 설 만
하 디 니 사 리 미 날 우 디 너 무 쯤 다 하 야 늘 공 공
이 웃 고 날 우 디 살 지 본 조 손 의 게 편 흘 거 시 니
이 지 상 의 집 대 형 으 론 진 실 로 쯤 거 니 와 대 대
祝 祝 奉 봉 禮례 만 한 사 리 의 대 형 이 드 이 면 너
모 너 르 니 라 하 디 라

○ 張 장 文 문 節 절 公 공 이 爲 위 宰宰 相 상 야 自 조

奉 봉 이 如 어 河 하 陽 양 掌 장 書 서 記 기 時 시 니 리 所

豈의 능능常 상有 유며 身신豈의 능능常 상

存존 오이리 一일 且도 에 異이 於이 今今日 일면이 家

家人인 이 習습 奢사 已이 이 父구라 不不能 능 頓頓

儉검야 必必 至지 失실 所所 迄迄 나리 豈의 若若 呑呑

居거 位위 去去 去去 位위 身身 存存 身身 亡망 에 如어

一일 日일 乎호 오이리

文문 節절 公公 張張 知知 自自 白白 이 지 상 드 외 여

셔자 내 몸 받 티 유 물 아래 하 양 고 을 掌掌 書書 記記

의 사 버 슬 향 여 이 신 적 구 티 향 더 니 친 호 인 사

루미외다하야닐오되이제는공공이룩을저
기아나트사되몸바티유를이리사오나이
시니비록청렴코간략호라하셔도밭깃사르
몬즈모네공공孫손弘홍이란지상의외로니
블한다하야괴롱흥기티하리잇느니공공이
저기남기티하라공공이환하야닐오되내이
제트년록이바록집안히사르미과금의를
니브며귀한차바닐며그닐엇디본할가분별
하리오마르오직사리의무수미검박하다

샤치예드루문쉽고샤치하다가검박애드루
문어려우니내의이젼륙이엇디미양이시며
내모민돌엇디미양사라시리오항릇아차미
이제와달이도의면지빛사름샤치호물비
환디오라문득검박디문항야가난항야실소
케도이리니엇디내벼슬항여신저기나벼슬
업슨저기나사라이신저기나주근저기나호
가지로흙만기투리오

○溫은公공이 曰 爾先せん公공이 爲위 群군 效목

判官官관 서야 客의 至지 未미 嘗시 嘗상 不불 置지

酒주 或혹 三삼 行행 或혹 五오 行행 不불 過과

과 七칠 行행 酒주 沽고 於어 市시 果과 止지

梨리 栗립 棗조 柿시 着초 止지 脯포 醢하이 菜채

羹羹 器기 用용 斃배 漆칠 當당 時시 士사 大대

大夫대부 皆가 然연 人인 不불 相상 非비 也야

會회 數수 而이 禮례 勤근 物물 薄박 而이 禮례

厚후 淳순

司스 馬마 河하 溫온 公공 尹인 尼니 沙사 狄딕 于우 理리 阿아 比비 阿아

고더니

近근日일日일士士於於大大夫夫家家가 酒酒非非內內

法法也也果果非非遠遠方方珍珍異異食食非非

多多品品酒酒器器皿皿非非滿滿案案也也

不不敢敢會會賓賓友友常常數數日日營營

聚聚然然後後敢敢發發書書苟苟或或

不不然然也也人人爭爭非非之之以以爲爲위

鄙鄙也也客客也也故故不不隨隨俗俗奢奢靡靡

이 者者 鮮鮮也也

요소가 토스의 지브셔솔이 대컬의 셔빗드 시
아니하거나 과실이 먼터셔 온귀흔 거시 아니
어나 차반이 여러 가지 아나 그르시 상의
고든 기바리디아니하원손을 뒤후디아니하
고 여러 날 차반을 어더 뒤후 후에 사손 청홀글
위를 내느니 그리 옷아니하여 듣느니 모다 외
다하야 더럽다 홀스 세속의 하난 이를 조차샤
치티아니하 리저그니

差
차乎호라 風 풍俗 속 類 類 되 弊 폐 如 如 是 是 也 也
니하

居位者자 | 雖不能能禁금나이忍인助
조지수호

차흠다風俗의사오나이도이유미이러
하니벼슬하여잇는사르미비록금티몬하
나
태마도아하랴

○溫은公공이 曰왈吾오家가 | 本은寒한族족

이世世以이淸淸白白相承承승고吾오性性이

不不喜喜出出華華靡靡이라 自不爲爲乳乳兒兒時時

로長長者者 | 加加以이金金銀은華華者者也也

가문이라부조로청뵈호를니셔오고내성이
호화코잇난이를즐기디아니호모로아하시
열브뵈열우니금은이어나빛난오슬모매니
피온은등부쳐려내여브리다나나히스물헌
재급데호야나라히쳐이바디호여머기실제
뵈흔자고즐아니고즈니同동年년번돌히닐
오디님그미주신거시라마디몬하리라홀시
곳흐나출고조라평형애오슬치옴기리올만
흐며바블비브를만호디쑤부러더러오며헌

웃노비시속을고터일흠어두문아나하고다
은내성에마즐만하노라하시더라

○汪翁信民민이 흠상言언타호人신이 常상咬

교得득菜菜根근則즉百백事사_물可가做주라

늘하_어 胡호康강侯후 一聞문_지고擊격節절嘆

관賞賞_하다

汪翁信民민이닐오되사르미양노물셀

회만머그며도편안히너기면잡무스미업서

온가짓이를다일오리라하야늘胡호康강侯

후이말스름름고소경향고차탄하야기리
더라

右浮는實을敬경身신이
라

이우하몸공경하물염그라

魏世譯의小治學宮卷之二第十終

右翻譯小學十卷繕寫投進

命付校書館刊行先是

殿下御講閣從容

語侍臣曰小學一書乃考亭朱夫子爲蒙士而纂者也蓋欲人在幼小之時先收放心以爲他日誠正脩齊之基本其爲訓也深切矣予幼嘗讀此然惟口讀是事耳未嘗究極其旨意今而思之頗有後時失學之悔茲欲於經筵重理舊讀庶幾有所補益爾其爲予講之

侍臣稽首進言曰

上諭及此聖功端在茲矣且今人心不淑頑傲未革苟非

上之人指示向方則彝倫或幾乎斃矣

上既尊尚此書盍亦使四方之民知

上所好而有所興起乎第慮國人尠解文字習學

尚艱如以方言翻而譯之廣印流布則雖兒童婦女開卷便曉顧民之方宜無急於此者

殿下可其言遂

命撰集廳譯進凡閱九筭月而事訖臣聞升高
者必自卑行速者必自邇爲學亦然不可躡
等故覆篲而成九仞盈科而達四海皆聖賢
勉人爲學之切喻也三代以降經殘而教弛
所謂八歲入小學之法蕩然廢盡爲士者幼
而無聞長益鹵莽流連之頃倏已晚暮雖欲
加功蓋無及矣士尚如此而況於人主乎九
重深嚴外廷之進見有時萬幾叢沓邪妄易
以投隙一暴十寒終於桎亡而已邈望其追

溫前業益做新功者乎寥寥千載善治幾聞
良以此耳今我

殿下以睿聖之資承大亂之後

功兼創守

任揔君師前旣續輯一綱行實使民興行今又
譯解小學使民由之而知所以立本誨誨諭
如慈父之命子猶謂

躬率之未盡先自開

講沉潛反復益聞所未聞茲豈非自新新民皆

欲止於至善而溫故知新以收小學之成功者乎將見家興禮讓之風人知孝悌之道醜成於變時雍之至治其皆本於此矣吁其盛哉正德紀元之十三年戊寅七月上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判義禁府事知春秋館成均館事臣南袞謹跋

崇政大夫判中樞府事無知經筵事判教禁府事知春秋館事兼文獻堂事臣金 詮

崇政大夫議政府左曹成憲知經筵事監會文館事兼文獻堂事兼文獻堂事臣南 袞

崇政大夫議政府右曹成憲同知經筵事弘文館提學臣崔淑生

通 政 大 夫 吏 曹 參 議 臣 金 安 老

通 訓 大 夫 濟 用 監 正 臣 尹 倬

奉正大夫守弘文館直提學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臣趙光祖

奉正大夫守弘文館直提學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臣金正國

奉正大夫守宗簿寺正兼承文院參校臣金希壽

朝散大夫守文館直學士 教無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臣孔瑞麟

中訓大夫軍器寺副正 兼承文院叅校 臣鄭順朋

奉正 大夫守司 宰監副 正臣金瑛

朝散大夫守成均館司成 知製 教無承文院叅校 臣蘇世讓

奉列大夫弘文館應教 知製 教無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臣鄭士龍

朝奉大夫守成均館司 館司 醫臣蔡紹權

通德郎守司 宰監 兪 正臣柳仁淑

奉訓郎守吏 曹正 郎臣鄭應

工
契



